

뷰티전공 대학생들의 진로 의사결정유형이 진로준비행동 및 전공만족에 미치는 영향

이재은

성결대학교 뷰티디자인학과 객원교수

Effect of Career Decision Making Type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Major Satisfaction of Beauty Major College Students

Jae-Eun Lee

Visiting Professor, Dept. of Beauty Design, Sungkyu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에서는 뷰티 전공 대학생의 진로 의사결정 유형을 확인하고, 진로 준비 행동과 전공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진로 준비 행동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2021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하였고, 질문지는 총 485부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연구 방법으로 빈도 분석,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 분석,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로 첫째 진로 의사결정 유형이 진로 준비 행동과 전공 만족에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합리적 진로 의사결정 유형은 의존 및 직관적 유형과 상관 관계가 있었으며, 진로 준비 행동으로 시간 노력, 능력 활동, 정보수집의 진로 준비 행동과 전공 만족으로 수업 만족, 교과 만족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셋째 진로 의사결정 유형 중 합리형과 의존형이 진로 준비 행동의 하위요인인 능력 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뷰티 전공 대학생, 진로 의사결정 유형, 진로 준비 행동, 전공 만족, 합리적 진로 의사결정 유형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career decision-making types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beauty, and to improve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by analyzing their effect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and major satisfaction. It was conducted from November 1 to 30, 2021, and a total of 485 questionnaires were used as analysis data.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as research methods.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the type of career decision-making showed a positive (+) correlation betwee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major satisfaction, indicating that i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Second, rational career decision-making style was correlated with dependence and intuitive style. As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ime effort, ability activity, and information collection, and the satisfaction of the major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 correlation in class satisfaction and subject satisfaction. Third, among career decision-making types, rational and dependent types were foun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ability activity, which is a sub-factor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Key Words : Beauty major student, Career decision-making typ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ajor satisfaction, Rational decision-making type

*Corresponding Author : Jae-eun Lee(peeelj@naver.com)

Received December 19, 2021

Accepted February 20, 2022

Revised January 18, 2022

Published February 28, 2022

1. 서론

현대사회는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등이 주도하며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창의 융합 교육 등의 방안을 제시하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현실 속에서 진로를 선택하고 준비하는 과정은 쉽지 않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대학입시에 중점을 둔 교육으로 대학에 진학한 후에 본인의 적성과 전공이 맞지 않아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1,2] 뒤늦게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탐색하는 경우가 많다[3].

대학생의 시기는 진로를 탐색하는 시기에서 초기 확립기에 속하며 다양한 학문적, 사회적 경험을 통하여 진로와 관련된 흥미와 욕구를 확인하고, 진로 능력과 가치관 등을 확립하기 위한 준비로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때이다[4].

이렇게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여 진로에 관한 정보를 탐색하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높을수록 진로 결정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5]. 이러한 것들이 선행되지 못하고 단기간에 취업을 위한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직업 적응과 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6], 대학생 시기의 진로 선택과 결정을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한 과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뷰티 전공 대학생들은 이론과 현장 기술을 동시에 습득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어 진로 결정에 관한 준비는 매우 중요하다[7].

진로 의사결정 유형이란 자신의 미래 진로에 관련된 결정을 할 때 선호하는 접근 방식의 유형을 말한다. Harren (1984)은 진로 의사결정 모형을 기초로 합리형, 의존형, 직관형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러한 진로 의사결정 유형별 특성이 진로를 결정하는 데 높은 연관성을 갖는다고 하였다[8].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의 특성을 살펴보면 자신의 주변 상황에 대하여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논리적이며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수행한다. 합리형이 본인 자신이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반면, 의존형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있어서 나보다는 타인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수동적이며, 사회적 인정에 대한 욕구가 높다. 또 의사결정의 책임을 본인이 지려 하지 않고 타인에게 전가하는 특성을 가진다. 직관형은 의사결정에 대해 본인이 책임은 지려고 하지만, 진로 정보를 탐색하는 활동이나 대안들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며, 미래보다는 현재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

며 자신의 상상과 정서적 자각을 사용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특성이 있다[1]. Harren은 이 세 가지 유형 중에서 합리적 유형이 진로계획과 정보탐색 활동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의사를 결정한다고 보았다[2,9].

진로 준비 행동이란 모든 환경적 요소에 대한 이해와 함께 진로에 대해 탐색하고 결정 후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위라고 하였다[4]. 진로 의사결정에서 합리, 의존, 직관의 유형별 특성들이 진로 준비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진로 준비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전공 만족이란 자신이 전공에 대해 경험하는 주관적인 감정으로[10], 전공에 대한 인식과 전공 학습에 대한 경험 등에 관하여 다양한 평가를 하는 판단과정의 산물이라고 정의하였다[11]. 대학 생활에서 자신의 전공에 만족한 경우 학업 성취도와 생활 태도가 향상되며[12], 그것은 진로 준비 행동으로 연결된다고 하였다[13]. 또한 진로 준비 행동은 전공 만족을 통해서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11]. 이렇게 전공 만족이 진로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진로 의사결정 유형과 진로 준비 행동, 전공 만족 요인들이 진로를 활발하게 탐색하고 결정을 준비해야 하는 대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진로 의사결정 유형을 확인하고 진로 준비 행동과 전공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그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진로 의사결정 유형과 진로성숙도[14], 진로 준비 행동[15,16], 자기효능감[17], 진로성숙도[18] 등 다양한 변수들과의 관계에 대해 선행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뷰티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의사결정 유형에 따른 진로 준비 행동과 전공 만족 영향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뷰티 전공대학생을 대상으로 의사결정 유형과 진로 준비 행동, 전공 만족의 상관성을 파악하고, 진로 행동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진로 준비 행동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과 경기지역 2년제와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485명을 선정하였다. 자료 수집은 2021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하였고,

설문지는 총 485부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설문지는 4개의 범주로 나누어 일반적 특성 3문항, 진로 의사결정 유형 17문항, 진로 준비 행동 11문항, 전공 만족도 14문항, 총 42개의 문항은 선행연구를 기초로 본 연구의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19-21].

2.2.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 프로그램 26.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뷰티 전공대학생의 인구 통계학적인 특성을 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하였고, 측정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또한 진로 의사결정유형이 진로 준비 행동 및 전공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 및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통계적 유의수준은 $p < .05$ 로 설정하였다.

3. 분석 결과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표본은 뷰티 전공대학 2년제와 4년제 경기지역대학생을 대상으로 485명을 표본에 사용하였다. 성별은 남성 26명(5.4%), 여성 459명(94.6%)으로 나타났다. 2년제 대학생 384명(79.2%), 4년제 대학생 101명(20.8%)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1학년 241명(49.7%), 2학년 212명(43.7%), 3학년 32명(6.6%)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Category		Frequency (N)	Percentage (%)
Gender	Male	26	5.4
	Female	459	94.6
	Total	485	100
Year	2 Year	384	79.2
	4 Year	101	20.8
	Total	485	100
Grade	1 Grade	241	49.7
	2 Grade	212	43.7
	3 Grade	32	6.6
	Total	485	100

3.2. 진로 의사결정유형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

진로 의사결정 유형의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Career decision-making factor analysis

Item	Factor			Communality
	1	2	3	
When I make important decisions, I look far and have ample time to plan and think well before I act.	.762	.084	.105	.599
I plan carefully before doing anything important.	.706	.062	.077	.508
I view my decisions as steps toward a clear goal.	.692	.056	-.021	.491
I take my time and think carefully when making decisions.	.690	.0284	.113	.569
I like to prepare as much as possible about possible consequences before making a decision.	.671	.111	-.218	.510
I do not make hasty decisions to make clear and correct decisions.	.660	.215	.096	.491
I make important decisions systematically.	.652	-.004	.188	.461
When I make a decision, I also consider the choices associated with that decision later.	.645	-.061	.109	.432
When accepting a decision, I often imagine how I would feel if I did it.	.604	.042	.215	.412
I rely on the opinions of those around me because I don't have the confidence to make decisions.	.132	.795	.012	.650
If my friends don't support my decisions, I'm not confident in my decisions.	-.080	.786	-.018	.624
When making decisions, you need a lot of encouragement and support from those around you.	.227	.694	.815	.567
My friends' opinions matter when I make decisions.	.125	.515	.375	.412
I often make decisions without checking the facts.	-.077	.046	.765	.594
I don't think deeply about a decision, but I know what to do with an improvised idea.	.325	.011	.645	.521
I make decisions based on my inner feelings and reactions.	.112	.179	.643	.458
I have a hard time making important decisions without the help of others.	.087	.514	.522	.544
Eigenvalue	5.046	2.365	1.433	
Variance (%)	29.682	13.913	8.427	
Cumulative (%)	29.682	43.595	52.022	
Cronbach's α	.860	.715	.651	
Total Cronbach's	.880			
KMO=.854 $\chi^2=2612.871$, $p < .001$				

1. Rational type 2. Dependent type 3. Intuitive type

전체 30문항 중 2. 4. 5. 6. 12. 15. 16. 18. 20. 23. 24. 26. 29번 문항은 요인 적재치 .05를 충족하지 못하여 제거한 후 17문항을 적용하였다. KMO 지수는 .854로 표본의 적합성이 확인되었고, Bartlett 구성형 검증치는 $\chi^2=2612.871$, $p<.001$ 로 변수 간의 상관이 선형적 관계인 것이 확인되었고 전체변량(total variance)은 52.022%의 설명력을 보였다.

요인분석에 적합함이 확인된 3개의 요인은 합리형, 의존형, 직관형으로 신뢰도(Cronbach's α) 값은 합리형.860, 의존형.715, 직관형.651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 값은 .863으로 통계적으로 수용 가능한 내적 일치도를 확인하였다.

3.3. 진로준비행동의 타당도와 신뢰도

진로 준비 행동의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전체 18문항 중 4. 5. 8. 9. 10. 12. 13번 문항은 요인 적재치 .05를 충족 못하여 제거한 후 11문항을 사용하였다. KMO 지수는 .781로 표본의 적합성을 확인하였으며, Bartlett 구성형 검증치는 $\chi^2=1283.970$, $p<.001$ 로 변수 간의 상관이 선형적 관계임을 확인하였고 전체 변량(total variance)은 56.785%의 설명력을 보였다.

요인분석에 적합함이 확인된 3개의 요인은 시간 노력, 능력 활동, 정보 수집으로 신뢰도(Cronbach's α) 값은 시간 노력.749, 능력 활동 .730, 정보 수집.610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 값은 .784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수용 가능한 내적 일치도를 보였다.

Table 3.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actor analysis

Item	Factor			Communality
	1	2	3	
In the past few months, I have made plans to visit an educational institution about a career that interests me.	.750	.198	.020	.603
I am making a plan by collecting various information about the companies I am interested in.	.737	.115	.165	.580
I have a specific plan, such as always checking the things I need to do to achieve my career goals.	.671	.242	.017	.509
In the past few months, I have participated in information sessions about the career I am interested in.	.627	.086	.109	.412

Item	Factor			Communality
	1	2	3	
In the past few months, I have participated in information sessions about the career I am interested in.	.627	.086	.109	.412
I am preparing with reference materials necessary for preparing for the career I am interested in.	.170	.855	-.007	.759
In order to prepare for the career that I am interested in, I go to a private academy and prepare.	.079	.743	.139	.578
I bought reference materials to prepare for the career path I am interested in.	.280	.739	.132	.642
I recently had a conversation with my parents about my career path.	.094	.097	.791	.644
Over the past few weeks, I have been talking with my friends about my career path.	.105	.061	.763	.597
For the past few months, I have had conversations with professors about my career path.	.147	.074	.635	.430
Eigenvalue	3.549	1.444	1.254	
Variance (%)	32.265	13.123	11.397	
Cumulative (%)	32.265	45.388	56.785	
Cronbach's α	.749	.730	.610	
Total Cronbach's	.784			
KMO=.781 $\chi^2=1283.970$ $p<.001$				

1. Rational type 2. Dependent type 3. Intuitive type

3.4. 전공만족의 타당도와 신뢰도

전공 만족의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측정 도구에 사용된 14문항 모두 요인 적재치를 충족한 것을 확인하였다. KMO 지수는 .884로 표본의 적합성을 확인하였으며, Bartlett 구성형 검증치는 $\chi^2=2763.362$, $p<.001$ 로 변수 간의 상관이 선형적 관계임을 확인하였고 전체변량(total variance)은 52.484%의 설명력을 보였다.

요인분석에 적합함이 확인된 2개의 요인은 수업 만족, 교과 만족으로 신뢰도(Cronbach's α)값은 수업 만족 .889, 교과 만족 .728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 값 .88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수용 가능한 내적 일치도를 보였다.

Table 4. Major satisfaction factor analysis

	Item	Factor		Communality
		1	2	
Class satisfaction	I think we are learning valuable things in our department.	.792	.185	.661
	I am generally satisfied with our department.	.776	.099	.613
	The class method suits me well.	.776	.161	.628
	Our department's curriculum is systematic.	.695	.200	.523
	I am interested in the educational content of our department.	.675	.316	.555
	Satisfied with the content of the theory class.	.674	.143	.474
	The major exam is appropriate and helpful in studying.	.660	.219	.484
	Satisfied with the contents of the practical training.	.654	.135	.446
	The classroom atmosphere in our department is satisfactory.	.648	.094	.429
Subject satisfaction	My parents are proud of my department.	-.015	.833	.694
	I proudly tell the people around me about my department.	.104	.806	.661
	Graduating from our department will be beneficial to your social life.	.187	.578	.369
	Our department is a good place for me to attend.	.415	.524	.446
	Many people want to come to our department.	.312	.518	.365
Eigenvalue	5.684	1.664		
Variance (%)	40.599	11.885		
Cumulative (%)	40.599	52.484		
Cronbach's α	.889	.728		
Total Cronbach's		.880		
KMO=.884 $\chi^2=2763.362$ $p<.001$				

1. Class satisfaction 2. Subject satisfaction

3.5. 진로의사결정유형, 진로준비행동, 전공만족의 상관관계분석

진로 의사결정 유형과 진로 준비 행동, 전공 만족의 상관관계 검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그 결과 진로 의사결정 유형에서 합리형은 의존형($r=.271$), 직관형($r=.281$), 시간 노력($r=.161$), 능력 활동($r=.071$), 정보 수집($r=.230$), 수업 만족($r=.109$), 교과 만족($r=.148$)으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의존형은 직관형($r=.417$), 시간 노력($r=.011$), 능력 활동($r=-.158$), 정보 수집($r=.027$), 수업 만족($r=.041$), 교과 만족($r=.007$)으로 능력활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직관형은 시

간 노력($r=.080$), 능력 활동($r=.008$), 정보 수집($r=-.007$), 수업 만족($r=-.036$), 교과 만족($r=.019$)으로 정보 수집, 수업 만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상관관계를 보였다.

진로 준비 행동 중 시간 노력은 능력 활동($r=.411$), 정보 수집($r=.327$), 수업 만족($r=.037$), 교과 만족($r=.175$)으로 나타났으며, 능력 활동은 정보 수집($r=.232$), 수업 만족($r=.141$), 교과 만족($r=.188$)으로 나타났다. 정보 수집은 수업 만족($r=.122$), 교과 만족($r=.191$)에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전공 만족 중 수업 만족은 교과 만족($r=.486$)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Table 5. Career decision-making typ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ajor satisfaction correlation analysis

	1	2	3	4	5	6	7	8
1	1							
2	.271**	1						
3	.281**	.417**	1					
4	.161**	.011	.080	1				
5	.071	-.158**	.008	.411**	1			
6	.230**	.027	-.007	.327**	.232**	1		
7	.109*	.014	-.036	.037	.141**	.122**	1	
8	.148**	.007	.019	.175**	.188**	.191**	.486**	1

* $P<.05$ ** $P<.01$

1. Rational type 2. Dependent type 3. Intuitive type
4. Time effort 5. Ability activity 6. Information gathering
7. Class satisfaction 8. Subject satisfaction

3.6. 진로의사결정유형이 진로준비행동 중 시간노력에 미치는 영향

진로 의사결정 유형이 진로 준비 행동 하위요인으로 시간 노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Durbin-Watson 값은 1.729로 2에 가까워 변수 간의 자기 상관의 문제가 없이 독립적으로 나타났다.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상관계수(R)는 .173이었으며 결정계수(R^2)가 .030로 나타나 독립 변인이 종속 변인에 미치는 설명력은 30.0%로 나타났다. 또한 회귀모형의 적합도 분산분석 결과 $F=4.932$, $p<.01$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하게 나타나 회귀식이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분석 결과로 합리형($\beta=.106$, $t=3.366$, $p<.01$)이 진로 준비 행동 중 시간 노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합리적 진로 의사결

정 유형이 본인의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진로 준비 행동의 특성을 의미한다.

Table 6.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Types on Time Effort during Career Preparation Behavior

DV	IV	B	SE	β	t	sig.	T	VIF
	C	2.166	.238		9.098	.000		
Time effort	1	.204	.061	.160	3.366	.001	.893	1.120
	2	-.058	.051	-.057	-1.138	.256	.8	1.249
	3	.068	.059	.059	1.166	.244	.796	1.256
		R=.173	R ² =.030,	F=4.932,	p<.01	D-W=	1.729	

***P* < .01

1. Rational type 2. Dependent type 3. Intuitive type

3.6.1 진로의사결정유형이 진로준비행동 중 능력활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 의사결정 유형이 진로 준비 행동 하위요인으로 능력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분석 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42.0%로 나타났고, 회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합리형($\beta = .111, t = 2.352, p < .05$)과 의존형($\beta = -.216, t = -4.322, p < .001$)이 진로 준비 행동 중 능력 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합리적 및 의존적 진로 의사결정 유형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동적인 노력을 의미한다.

Table 7. Effect of Career Decision -Making Types on Competence Activities During Career Preparation Behavior

DV	IV	B	SE	β	t	sig.	T	VIF
	C	2.800	.290		9.666	.000		
Ability activity	1	.173	.074	.111	2.352	.019	.893	1.120
	2	-.269	.062	-.216	-4.322	.000	.801	1.249
	3	.095	.071	.067	1.332	.184	.0796	1.256
		R=.206,	R ² =.042,	F=7.110,	p<.001	D-W=	1.871	

****P* < .001

1. Rational type 2. Dependent type 3. Intuitive type

3.6.2 진로의사결정유형이 진로준비행동 중 정보수집에 미치는 영향

진로 의사결정 유형이 진로 준비 행동 하위요인으로 정보 수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분석 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59.0%로, 회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합리형($\beta = .254, t = 5.429, p < .001$)이 진로 준비 행동 중 정보 수집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8.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type on information gathering during career preparation behavior

DV	IV	B	SE	β	t	sig.	T	VIF
	C	2.816	.236		11.954	.000		
Information gathering	1	.325	.060	.254	5.429	.000	.893	1.120
	2	-.011	.051	-.011	-.217	.828	.801	1.249
	3	-.087	.058	-.074	-1.493	.136	.796	1.256
		R=.243,	R ² =.059,	F=10.021,	p<.001	D-W=	1.851	

****P* < .001

1. Rational type 2. Dependent type 3. Intuitive type

3.7 진로의사결정유형이 전공만족 중 수업만족에 미치는 영향

진로 의사결정 유형이 전공 만족 하위요인으로 수업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9와 같다.

분석 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8.0%로 나타났고, 회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합리형($\beta = .122, t = 2.558, p < .05$)이 전공 만족 중 수업 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생활에서 자신의 전공에 만족하면 학업 성취도와 생활 태도가 향상되며, 진로 준비 행동으로 연결된다는 선행 연구 결과 [11-13]를 뒷받침하였다.

Table 9. Effect of Career Decision- Making Type on Class Satisfaction among Major Satisfaction

DV	IV	B	SE	β	t	sig.	T	VIF
	C	3.504	.170		20.562	.000		
Class satisfaction	1	.111	.043	.122	2.558	.011	.893	1.120
	2	.033	.037	.045	.898	.370	.801	1.249
	3	-.074	.042	-.089	-1.763	.078	.796	1.256
		R=.136,	R ² =.018,	F=3.018,	p<.05	D-W=	1.748	

**P* < .05

1. Rational type 2. Dependent type 3. Intuitive type

3.7.1 진로의사결정유형이 전공만족 중 교과만족에 미치는 영향

진로 의사결정 유형이 전공 만족 하위요인 중 교과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

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분석 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23.0%로 나타났고, 회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합리형($\beta = .159, t=3.341, p<.01$)이 전공 만족 중 교과 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0.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type on subject satisfaction among major satisfaction

DV	IV	B	SE	β	t	sig.	T	VIF
subject satisfac- -tion	C	3.146	.170		18.460	.000		
	1	.145	.043	.159	3.341	.001	.893	1.120
	2	-.022	.037	-.030	-6.01	.548	.801	1.249
	3	-.011	.042	-.013	-2.56	.798	.796	1.256
R=.152, R ² =.023, F=3.781, p<.05 D-W= 1.947								

* $p<.05$

1. Rational type 2. Dependent type 3. Intuitive type

3.8 진로준비행동이 전공만족 중 수업만족에 미치는 영향

진로 준비 행동이 전공 만족의 하위요인 중 수업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11과 같다.

분석 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31.0%로 나타났고, 회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진로 준비 행동으로 능력 활동($\beta = .139, t=-2.798, p<.01$)이 전공 만족 중 수업 만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1. Effect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n Class Satisfaction among Major Satisfaction

DV	IV	B	SE	β	t	sig.	T	VIF
Class satisf- -action	C	3.380	.137		24.654	.000		
	1	-.040	.036	-.056	-1.098	.273	.774	1.292
	2	.081	.029	.139	2.798	.005	.820	1.219
	3	.077	.034	.109	2.272	.881	.881	1.134
R=.175, R ² =.031, F=5.092, p<.01 D-W=1.769								

** $p<.01$

1. Time effort 2. Ability activity 3. Information gathering

3.8.1 진로준비행동이 전공만족 중 교과만족에 미치는 영향

진로 준비 행동이 전공 만족의 하위요인으로 교과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12와 같다.

분석 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63.0%로 나타났고,

회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진로 준비 행동으로 능력 활동($\beta = .124, t=2.545, p<.05$)과 정보 수집($\beta = .137, t=2.907, p<.01$)이 전공 만족 중 교과 만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 만족의 하위요인인 교과수업 만족은 대학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며 진로 준비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3].

Table 12. Effect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n Subject Satisfaction among Major Satisfaction

DV	IV	B	SE	β	t	sig.	T	VIF
subject satisfac- -tion	C	2.833	.135		20.971	.000		
	1	.057	.036	.079	1.580	.115	.774	1.292
	2	.072	.028	.124	2.545	.011	.820	1.219
	3	.097	.033	.137	2.907	.004	.881	1.134
R=.252, R ² =.063, F=10.847, p<.001 D-W= 1.880								

*** $p<.001$

1. Time effort 2. Ability activity 3. Information gathering

4. 결론 및 제언

4.1. 결론

본 연구는 뷰티 전공대학생의 진로 의사결정 유형이 진로 준비 행동 및 전공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연구 절차를 통하여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 의사결정 유형이 진로 준비 행동 및 전공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결과 진로 의사결정 유형이 진로 준비 행동과 전공 만족에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텔 외식 조리 전공 대학생들은 진로 의사결정 유형이 취업기대감 및 진로 준비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17]는 결과가 있어 본 연구와 상이했다. 이러한 결과는 호텔 외식 조리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 의사결정 유형으로 의타형, 신중형, 우유부단형, 타인 의식형, 즉흥형, 자존형에서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에 유의하게 나타나 전공 특성에 따른 특성을 보인 것으로 보였다. 또한 진로 의사결정 유형 보다는 자기효능감이 취업기대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진로 준비 행동을 자극하는 것으로 나타나 추후 연구에서 참고해야 할 것으로 보였다.

둘째, 진로 의사결정 유형, 진로 준비 행동, 전공 만족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합리적 진로 의사결정 유형은 의존 및 직관적 유형과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진로 준비 행

동으로 시간 노력, 능력 활동, 정보 수집의 진로 준비 행동과 전공 만족으로 수업 만족, 교과 만족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합리적 진로 의사결정 유형의 특성이 대학 생활을 통해 진로 준비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의존적 진로 의사결정 유형은 능력 활동에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2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으며,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능력을 올리기보다는 타인에게 의지하는 성향과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직관적 진로 의사결정 유형은 정보 수집과 수업 만족에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 정보탐색 활동 보다는 자신의 감정으로 결정하는 특성을 반영하였다.

진로 준비 행동 중 정보수집은 전공 만족 중 수업과 교과 만족에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 진로 준비행동이 전공 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였다.

셋째, 합리적 진로 의사결정 유형은 진로 준비 행동 중 시간 노력, 능력 활동, 정보 수집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선행결과와 일치하였다[15,16,22]. 이것으로 진로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논리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합리형은 전공 만족에서 수업 만족과 교과 만족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 결과가 일치하였다[13,18]. 대학 생활에서 자신의 전공에 만족하면 학업 성취도와 생활태도가 향상되며, 진로 준비 행동으로 연결된다는 선행결과의 가능성을 뒷받침하였다[11-13]. 전공 만족의 하위요인인 교과수업 만족은 대학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며 진로 준비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3]. 합리적 집단의 진로 장벽 인식 수준이 가장 낮았으며 합리적 유형이 진로를 계획하고 계획을 이행하는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2,12]. 진로 준비는 자기 자신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진로 실천을 해야 할 것을 강조하며, 합리적인 진로 의사결정 유형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하였다[16]. 여기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란 자신의 상황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여 논리적이며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지 않고 스스로 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진로 의사결정 유형 중 합리형과 의존형이 진로 준비 행동의 하위요인인 능력 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율적인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진로 준비 행동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23]. 능력 활동은 이러한 목표 달성 행동으로 볼 수 있으며, 합리적 진로 의사결정 유형 뿐 아니라 의존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들의 진로 상담에서 합리적 유형에 대한 관심을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존적 유형의 특성을 변화시키는 데 더욱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1].

4.2. 제언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진로 결정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합리적인 과정을 따르며, 타인에게 덜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 본 연구에서 2년제 대학생 384명(79.2%), 4년제 대학생 101명(20.8%), 1학년 241명(49.7%), 2학년 212명(43.7%), 3학년 32명(6.6%)으로 구성되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학년 분배를 고르게 하여 학년별 특성의 차이를 확인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받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뷰티 전공의 2년제의 졸업반인 2학년과 4년제의 2학년의 진로 결정 수준이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 학년제별 차이에 관한 비교·분석 연구를 제언한다.

뷰티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 준비 행동을 높이기 위한 장기적 대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진로 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중 직관형과 의존형은 감소한 반면 합리형은 증가하여, 진로 탐색을 목적으로 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실제적이고 논리적인 평가에 통해 진로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어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분석하였다[24]. 이러한 진로 탐색프로그램 경험집단 유, 무를 대상으로 진로 결정 수준을 검사한 결과 진로 탐색을 경험한 집단에서 유의미하게 진로 결정 수준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1]. 반면 [25]의 연구에서는 대학의 진로특강이나 취업설명회와 같은 프로그램 중심의 단기적 접근보다는 전반적인 대학 교육과정에서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진로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교육 과정에서 수업 참여에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학생들의 동기 유발 자극을 통해 교과 수업만족을

높이는 것은 진로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대학 차원에서 지원하는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양질의 수업, 시설과 실습환경, 정서적 지지, 교수지원 등의 환경에 대해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할 때 참여가 높아진다고 하였다[26]. 또한 대학에서는 교수-학생 간에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좁힐수 있는 방안으로 학생 교육과 진로지도 등의 중요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27,28]. 이러한 대학의 지원적 환경 정비는 뷰티 전공 대학생들의 긍정적인 참여 의식을 높여 진로 준비와 전공에 대한 만족도 증가 효과로 합리적 의사결정과 행동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 [1] H. J. Koh. (1992). *A Study on the Effect of Career Counseling on Korean College Student' Decision Marking Styles and on Career Decision Marking Status*.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2] M. J. Kim. (2011). *The Effects of Career Identity, Career Decision-Making Types, and Career Decision Levels of College Student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aster's Degree Thesis. Yeungnam University, Gyeongbuk.
- [3] Y. R. Kim & J. K. Lee. (2016). The Differences of psychological traits according to Vocational Identity Status: Based on Korean version of the Vocational Identity Status Assessment(VISA) in College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7(5), 331-356.
- [4] Y. K. Choi & S. H. Kim. (201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cale for University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3(5), 2085-2097.
- [5] S. O. Kim. (2016). The Relationship among Self-Efficacy, Career Decision Making Types and Career Decision Level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2(2), 210-219.
- [6] Y. A. Young, W. H. Kim & K. E. Kim. (2017). Impact of Demographic and Career Variables on Career Decision Making of Korean College Students : Latent Profile Analysi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al Research*, 30(1), 115-140.
- [7] H. J. Kim, J. E. Lee & H. J. Chon. (2019). Relationship between Career Calling Perception and Career Decision Level Perceived by Beauty Maj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Holistic Convergence Education*, 23(4), 19-34.
- [8] B. H. Lee, D. H. E. J. Lee, S. H. Jang, S. H. Jeong & S. M. Lee. (2013). The Mediation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tyl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Trait Anxiety and Career Indecision.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4(2), 1383-1400.
- [9] S. H. Kim. (2009). *The Effects of Career Value Clarification Program on Middle School Student' Career Identities and Career Decision-Marking Abilities*. Master's Degree Thesis. Kosin University, Busan.
- [10] Logue, C.T.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Traits, Vocational Interest Themes and College Major Satisfactio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nnessee.
- [11] S. L. Lee. (2021). *The Mediation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and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Occupational Valu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jor Selection Motiva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Master's Degree Thesis. Kyonggi University, Seoul.
- [12] J. H. Lee. (2008). *A Study on Department Satisfaction, Career Maturity, and Career Stress of College Student*. Master's Degree Thesi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Gangwon.
- [13] J. M. Lee. (2019). The Relationships between Major Satisfaction, College Adjustmen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Contemporary Dance. *Official Journal of the Koeran Society of Dance Scienc*, 36(3), 1-14.
- [14] Y. J. Choi, I. H. Lee & Y. J. Kim. (2014). Effects of Career Maturity of undergraduate students majoring in Cosmetology on Career decision-making style.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12), 7068-7076.
- [15] W. H. Hwang & K. E. Bae. (2017). The Effect of Personality Type and Career Decision Making Type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8(3), 1237-1258.
- [16] J. W. Kim, M. H. Yun, H. J. Seo & S. S. Park. (2009). The Influence of MBTI Type and Career Decision Type of Female College Studen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al Research*, 22(4), 195-217.

- [17] H. K. Kim & J. J. Lee. (2011). A Study on Decision-making for Their Job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f the Students Hotel Food Service Industry or Cooking. *The Korea Academic Society Of Tourism And Leisure*, 23(6), 233-251.
- [18] H. S. Jeong. (2013). *The career decision making styles of the students in a consigned vocational course in general high schools and the effect of their career attitude maturity on their major satisfaction*. Master's Degree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19] V. A. Harren. (1984). *Assessment of career decision making*. Los Angeles: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 [20] Y. J. Kwon. (2018).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College Student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Related Variables Based on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Doctor's Degree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ungbuk.
- [21] J. S. Yoo. (2019). An Analysis of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Variables of Self-Esteem,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 Focusing on undergraduates majoring in Airline Service -. *Journal of the Aviation Management Society of Korea*, 17(2), 3-27.
- [22] D. S. Park. (2014). The Effects of Satisfaction in their Departments of Health College Students and the Types for Career Decision on Career Preparatory Behavior.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10), 415-423.
- [23] B. W. Kim & K. H. Kim. (1997).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9(1), 311-333.
- [24] H. R. Lee, J. H. Son, S. J. Kim & S. M. Kim. (2007). The Effects of Career Exploration Group Counseling Program on the Career Decision -Making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of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6(1), 195-217.
- [25] H. W. Na & A. N. Kim. (2020). An Analysis on Factors of Career Exploration and Career Consciousness in College Students: Focusing on the Growth Trajectory of Student Engagement.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30(3), 23-54.
- [26] H. J. Gong & B. S. Rhee. (2014). What Determines Student Engagement: Focusing on The Effects of College Students' Perceived Learning Environment and Institutional Features.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32(3), 177-207.
- [27] Y. K. Kim, H. I. Park & J. Y. Ahn. (2018). The Influence of Faculty-Student Interaction upon Students' College Life Adaptation: A Longitudinal Analysis via Latent Growth Model. *The Journal of Politics of Education*, 25(3), 31-52.
- [28] K. Y. Byun, S. Y. Lee & S. H. BAE. (2017). The Characteristics and Success Factors of Effective Undergraduate Teaching : Cross-case Analysis of 5 Korean Universities. *Research Institute of Education Korea University*, 30(1), 227-260.

이재은(Jae-Eun Lee) [정회원]



- 2009년 8월 : 성신여자대학교 피부미용관리학과(석사)
- 2020년 8월 : 동덕여자대학교 보건향장학과(박사)
- 2021년 3월 ~ 현재: 성결대학교 객원교수

- 관심분야 : 피부미용, 화장품
- E-Mail: peelj@naver.com